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2

꿈을 안고, 자신과 싸우며 끝까지 달린다

-이색 참가선수·단체

“불가능은 없다...하프코스 도전”

■ 장애인 동계체전 2관왕 한성주

장애인동계체전 MVP 한성주(18·전남고 3)가 3·1 전국 마라톤 대회에서 멈추지 않는 질주를 선보인다.

지난 22일 폐막한 제 5회 장애인 동계체전에서 한성주는 쇼트트랙 입문 1년여 만에 빙상 500m, 1천m에서 2관왕에 오르는 기업을 토하며 일약 빙상계 스타로 떠올랐다.

지적장애 3급을 앓고 있는 한군은 원래는 축구 선수로 더 유명하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우기 위해 처음 축구를 시작했다

던 한군은 '제1회 함평코리아배 전국장애인축구대회' 득점왕, 지적장애인 축구 국가대표 등의 화려한 이력을 가진 운동선수로 성장했다.

2006년에는 지적장애인복지협회 회원들과 3·1 전국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면서 마라톤에 입문했다. 지난해 대회에서는 축구로 다져진 체력을 바탕으로 10km를 완주했다. 올해는 하프 코스에 도전장을 냈다.

'MVP'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광주에 돌아온 한군의 기쁨은 최상이다. 동계체전의 여력이 풀리지 않아 완주를 장담할 수 없지만, 한군은 회원들과 함께 발을 맞추며 어느 때보다 경쾌한 질주를 펼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풀코스 완주엔 국회의원 출마”

■ 74세 박영기 응

42.195km 풀코스를 완주한다는 것은 건강한 일반인들도 엄두를 내기 어렵다. 특히 아마추어 마라톤러들에게 꿈의 기록인 '서브-3' 기록은 오랜 동호인 활동과 훈련을 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기록이다.

그럼에도 이번 3·1절 전국 마라톤대회 풀코스 완주뿐만 아니라 74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서브-3'에 도전장을 낸 이가 있다. 주인공은 박영기(74·인천시 서구·시인)옹.

박 옹이 이처럼 풀코스 완주에 만족하지 않고 '서브-3'에 대한 목표와 의지를 내세우는데 그럴만한



사연이 있다.

정치에 뜻이 있던 박 옹은 지난 2004년 동아마라톤대회에서 자신이 계획했던 시간대에 끝인하면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출마를 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기록이 저조해 그해 출마를 포기했고 4년동안 절치부심, 올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서 '서브-3'를 달성하면 서울 종로 지역구 출마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 1950년 광주 서중을 졸업해 광주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 광주와도 인연이 깊은 박 옹은 광주 사직공원 인근에서 학교를 다녔고, 지산동에서 잠깐 살았던 추억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박 옹은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는 저에게 낯선 곳이 아니고, 3·1 정신을 되새기며 이번 대회에서 '서브-3'를 달성한다면 정치에 강한 의지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특히 올해 큰 일을 앞두고 자신과의 대결에서 반드시 승리해 정치 출사표를 던져보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더욱 자신감 생길 것 같아요”

■ 화순 특공무술 초·중학생

새 학기를 앞둔 전남지역의 꿈나무들이 3·1 전국 마라톤 대회 참가를 위해 광주를 찾았다.

화순, 남평 설악특공무술 체육관의 초·중 수련생 55명이 5km 구간을 도전장을 내고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학생들은 화순 고인돌 축제에서 무술시범단으로 활동하다 축제 행사중 하나인 고인돌 마라톤 대회에도 참가하면서 마라톤에 입문하게 됐다.

이번 3·1 전국 마라톤대회는 처음 참가하는 거라 아이들의 기대가 높다. 학교 입학 앞두고 있는 막둥이 정아(여·8)도 오빠 동진(11)군의 손을 잡고 완주에 나서게 된다.

5학년이 올라가는 이원태·원지 쌍둥이 남매는 4년 전 다른 수련생들과 처음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가 아예 학교 육상부도 나섰다.

무술 경력 25년의 윤종진(37) 관장도 55명의 천사들과 함께 질주하며, 아이들이 힘찬 새 학기를 맞을 수 있기를 기원할 계획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06년 3·1 전국마라톤대회 10km부분에 참가해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한성주.

“새로운 도전은 항상 즐거운 일”

■ 광주시 장애인체육회

장애라는 벽을 넘어 후손의 질주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소속 50명의 선수들이 3·1절 전국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5km의 구간을 달리게 된다.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장애를 앓고 있지만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한자리에 서기 위해 마라톤 출전을 결심했다.

이들이 참가하는 5km구간은 42.195km에 비하면 짧은 거리다. 하지만 장애인들도 가쁜 호흡으로 30분 정도를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이기도 하다. 비록 마음처럼 몸을 움직일 수는 없지만 평소 운동을 통해 체력을 다져왔던 이들은 내심 좋은 성적도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 중에는 탁구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는 김공룡(40)·조재관(31)·김영건(24)씨도 있다. 2008 베이징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하게 되는 이들은 3·1 전국 마라톤의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금메달 사냥에 나서고 싶다.

눈에 보이는 '장애의 벽'보다도 장애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장애인들의 '마음의 벽'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마라톤 대회 나사게 된 것은 그 '마음의 벽'을 조금이나마 낮춰 보고자 하는 생각에서다.

선수단을 이끌고 대회에 참가하는 문상필(41)사무처장은 "올해는 우리 고장에서 외부 손님들을 초대해 제 28회 전국장애인체육회를 치뤄야 하는 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시장애인체육회 회원들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 참가해 후손의 질주를 선보이게 된다.

/니영기자 mjna@kwangju.co.kr

“영·호남 화합 전도사 되겠어요”

■ 대구 보훈병원 마라톤클럽

“3·1절의 정신을 되새기며, 영·호남 화합을 위한 전도사가 되어 달리겠습니다.”

대구보훈병원 마라톤 클럽인 '런너스'의 회원들이 제 43회 광주일보 전국 마라톤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하게 된다.

회원들은 꾸준한 운동으로 체력증진의 효과는 물론 함께 운동을 하면서 배려와 인내심을 키워 직장 분위기가 부쩍 좋아졌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1월 경남 고성마라톤대회를 시작으로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은 앞으로 각 지역에서 펼쳐지는 마라톤 대회에 월 1회 이상 참가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 무대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2001년 창단 이후 솔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지만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는 처녀 출전으로, 광주가 고향인 김종명 총무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이번 나들이를 준비하게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골프·윈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특펠리 회원권

골프 윈도 시세인원	골프 윈도 시세인원
광주 3,500	충청 1,700
남광주 4,400	금도 1,900
클럽900 6,400	도포양 2,100

상담문의 (062)351-0095

-광주시 선관위

“우리도 뛰는다”

-남부대 무도학과

“꿈수 통하지 않는 공명선거 위해 달리죠”

“마라톤처럼 반칙이나 꿈수가 통하지 않는 공명선거를 위해 달리겠습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이 마라톤 클럽'이 제43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 출사표를 던졌다. 5, 10km에 출전하는 33명의 회원은 이번 대회 통해 체력을 다지고, 마라톤처럼 정정당당한 플레이 정신이 선거풍토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공명이 마라톤 클럽은 지난 2002년 광주시와 5개구 선관위 직원 43명이 각종 공직선거 및 위탁선거의 무표율을 높이고, 불법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 의기투합해 결성됐다. 이번 대회에서도 정정당당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선봉에 서겠다는 다짐으로 최선을 다해 레이스를 펼칠 예정이다.

정태성(광주 북구선관위 지도담당관)회장은 “광주지역의 경우 이번 총선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대회 당일 날 중앙선관위 홍보캐릭터 ‘공명’이와 선거참여를 권유하는 홍보현수막 등을 통해 공명 선거 캠페인을 펼치면서 무사히 총선이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공명이 마라톤 클럽 회원들이 3·1마라톤대회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이들이지만, 마라톤을 통해 건강과 실력을 키우는 일에도 열심이다. 총선을 준비하느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회원들은 업무가 끝난 후 개인 훈련을 하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문무 겸비 무도인 양성 ‘호남 유일 학과’

“호남 유일의 무도학과를 홍보하고 무도인의 마음자세를 가다듬으며 달리겠습니다.”

남부대학교 무도학과 학생들의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출전 일성이다.

지난 2006년 신입생 20명으로 출발한 남부대 무도학과는 전국에서 몇개 안되는 특수학과로 자긍심이 대단하다. 무도학과는 용인대, 선문대, 영동대와 남부대에만 개설돼 있다.

최승식(41)학과장은 “남부대 무도학과는 호남지역 유일한 학과로 기존의 태권도학과나 유도학과 경호학과와는 차이를 달리한다”며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교과과정을 통해 무도의 이론과 실기에 정통한 문무겸비의 실무형 무도인 양성을 위해 신선했다”고 말했다. 특히 무도학과에서는 종합무술외에도 수영, 체조 등 레포츠 교육을 통해 졸업 후 일반 공인 유단증, 생활체육 지도자 2~3급 자격부여, 실기교사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 진출이 가능하다.

오는 3월1일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출전을 앞두고 있는 남부대 무도학과생 모두는 전문 무도인들로 체력을 자신하고 있다. 특히 짧은 역사로 인해 학과생들의 단합과 화합이 중요



남부대 무도학과 학생들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서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레이스를 펼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한 이들은 새봄을 여는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출전을 계기로 단합과 우의를 다지면서 새학기를 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평소 '술선수법'을 외치는 최승식 학과장은 젊은 학생들에게 절대 뒤지지 않도록 매일 체육관에서 체력단련을 하며 스타트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